

심장의 리듬에 발맞추기

하트 리듬 희망 장려상

김 선 영

하루만 전화를 걸러도 마음이 달아 조급증을 부리시는 엄마가 사나흘 연락이 없으셨다. 안부가 궁금하면서도 그놈의 조급증에 장단 맞추기 싫어 모른 척 연락 않고 있었더니만 일주일일이 되도록 무소식이다. 이 정도면 무슨 일이 있지 싶어 전화를 드리니, 엄마의 목소리가 영 불안정했다. 추궁하여 상황을 물으니, 사연은 ‘니 아버지 죽다 살아났다’로 시작되었다. 부모님께서 언니 집에 며칠 머물며 가사를 돌보던 시기, 오랜만에 친구 분들과 약주 한 잔 하신다며 멀리까지 길을 나선 날이었다고 하셨다. 두서없는 엄마의 설명도 답답하고, 아빠의 상태를 직접 봐야 안심이 되겠다 싶어 서둘러 본가에 갔다. 아버지는 유난히 말라보였고, 겸연쩍은 표정으로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셨다.

“그렇게 술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야. 자리가 없어서 지하철에 서서 지희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거기서 쓰러졌나봐. 의식이 잃어 기억은 안 나고 깨어보니 근처 병원 응급실이었다고. 지하철에 있던 사람이 바로 신고해서 119에 실려 왔다는데 응급실에서 몇 가지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검사 받고 다음 날 아침에 돌아왔지.”

정신이 들자마자 아버지는 형부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에게도 말 하지 말고 병원으로 올 것을 당부하셨단다. 엄마나 언니가 알면 얼마나 놀랄까 싶어 그리 하셨을 테지만, 엄마와 언니에게 이미 한 소리 들으신 모양이었다. 30여 년간 고혈압 약을 드신 것 만 빼면 건강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이 없었고, 칠십 중반의 연세에도 테니스나 장시간 등산을 거뜰히 해내셨던 분이 우리 아버지였다.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근육질 몸에 흰머리보다 검은 머리가 많아 유난히 젊어 보이는 아버지였기에 의식을 잃고 실신하셨다는 상황이 그려지지 않았다.

“연세가 있으시니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운동도 테니스 같은 과격한 활동 말고 골프 같은 거 하시면 어때요?”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는 당부를 남기고 돌아오는데, 별 생각 없이 들고 넘겼던 여러 사건들이 스쳐지나갔다. 등산을 가셨다가 손이 너무 차가워져서 엄마가 한참을 주무르셨더니 겨우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손을 움직이시더라는 얘기며, 팀플레이로 테니스를 치시는데 같은 편 선수가 휘두른 라켓에 눈을 맞고 쓰러지셨던 일들이 떠올랐다. ‘본래 아버지가 손발이 차가운 편이셨지’ ‘연세가 드셔서 순발력이 떨어지셨나 보다’ 하고 넘겼던 사건들이었다. 그런 사건들이 신체가 보내는 신호였음을 인식하지 못했다. 아버지 역시도 그러셨으리라.

그 사건 이후 이년 남짓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버지는 무탈하셨다. 여전히 테니스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하셨고, 8시간 능선을 따라 등산도 즐기셨으며 하루에 7킬로미터 이상 달리기도 하셨다. 그날의 사건이 그냥 순간적인 에러였나 싶게 묻혀 지나갈 무렵, 엄마와의 통화를 건너뛴 지 며칠이 지났음을 의식한 어느 겨울날이었다. 불안과 두려움을 숨기지 못하는 엄마의 목소리……. 아버지는 또 119를 타셨고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실려 가셨단다. 걱정과 불안이 밀려 와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그걸 왜 말을 안 하느냐’는 쓴 소리로 감추며 통화를 끊었다. 하필이면 다음다음 날이 아버지 생신이였다.

일반병동으로 옮긴 뒤에야 면회가 가능했다. 수술이 아니고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것이니 큰 걱정 말라고 하셨지만, 온 몸을 고정시키고 시술을 받는 과정이 무척 고통스럽더라는 말씀도 털어놓으신다. 그저 ‘괜찮다, 괜찮아’ 하시는 분이 말이다.

“네 엄마랑 호수공원 한 바퀴 돌고 공용화장실에 갔다 나왔는데 갑자기 몸이 움직여지질 않더라고. 의식이 있는데도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어. 엄마가 119에 바로 신고해서 중환자실로 갔어. 병원 가까이 있어 천만다행이었지.” 하신다. 부정맥 증상이라는데 말로만 들어봤을 뿐, 내 생활 범위에서 보고 듣던 증상이 아니라 생소했다. 질환의 당사자인 아버지조차 그러하신 듯 무엇 하나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하셨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당신의 몸에 나타난 급작스런 변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다. 앞으로 정기 검진 받고, 혈압 약 먹듯이 약 잘 챙겨먹으면 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도 말이다.

그 후 세 차례의 정기검진을 받으셨으니 일 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나보다. 안부를 여쭙 때마다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의 느낌이 씁쓸하고도 쓸쓸했다. 테니스 대신 골프를 권할 때면 ‘살아 움직이는 테니스공 치던 사람은 죽은 공을 치지 못하는 법’이라며 자신감을 내보이시던 아버지에게서 더 이상 그런 자신감을 찾을 수가 없었다. 막 걸리 몇 병 사오라 하시며 거나한 저녁시간을 기대하시던 들뜬 목소리도 들을 수 없는 것도,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장거리 운전이 힘들어 남도의 계절 여행을 마다하시는 아버지의 머뭇거림도 속상했다.

“아버지가 이제 진짜 많이 늙으셨나봐. 예전과 정말 달라지셨어.”

남편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는다.

“아버님 연세가 일흔 중반이셔. 지금까지 테니스나 등산, 장거리 여행까지 하신 게 대단하시지. 이젠 정말 힘드실걸? 연세나 몸 상태에 맞게 가벼운 운동 하셔야지. 다치시고 쓰러지신 일들이 다 몸이 보내는 경고야. 나이 들어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 아니야?”

듣고 보니 그렇다. 우리 몸의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건강했던 과거를 쫓는다면 무리가 오는 게 당연하지 싶다. 자기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서 걸음의 템포를 조절하고, 긴장할 때와 이완할 때를 파악하는 능력이야말로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필수조건이 아닐까.

팔딱거리는 맥박은 살아있음의 증거이다. 너무 느리게 뛰어도, 지나치게 빨리 뛰어도 생명은 힘겹다. 체온을 통해 몸의 이상증후를 측정하고 조절하는 것처럼, 맥박은 내 몸의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임을 왜 잊고 있었을까? 문득 임신 중에 초음파검사를 통해 들었던 아이의 심장 뛰는 소리가 떠오른다. 누구나 뛰는 심장을 품고 있고, 저마다의 리듬을 지니고 있다. 어쩌면 아버지도 이제야 당신의 심장 리듬에 귀를 기울이시게 된 것은 아닐까. 아버지가 당신 심장의 리듬을 느끼고,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팔딱거리는 심장을 다독이며 잔잔한 여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해본다.

